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원정숙 · 신현숙

¹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²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 · 동서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The Effect of Small Group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Compet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Human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Won, Jeong-Sook¹ · Shin, Hyunsook²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Investigator,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Background: Communication training in nursing college students is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of their competency in dealing with patients. However, the traditional lecture style of training delivery may not be desirably effectiv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utilizing a small group dynamic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human relationship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One hundred twenty six freshmen in a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strument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and human relationships (Relationship Change Scale) were used at the beginning and conclusion of the training period. Eighty-three students from two nursing classe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s and 43 students from other classe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s. Each of the 11 small groups was composed of 7 or 8 students. The weekly program that ran during the 2007 fall semester from October 1st to December 11th consisted of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clud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Johari's window, empathy, active listening, and transactional analysis.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of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competencies, specific nonverbal competencies, and human relationship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Specifically, the experimental students demonstrated greater improvement in nonverbal communication competencies and satisfaction, communication, and awareness of human relationships. **Conclusions:** Small group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method of commun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Key Words: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Human relationship, Small group dynamic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세계를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보아야 하며, 역동적으로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건설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

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상자와 면대면의 돌봄을 하는 간호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간호사 자신의 의사소통이 인격을 대변하며 모든 간호상황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Arranz, Ulla, Ramos, Rincon, & Lopez-Fando, 2005).

간호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과 시기적으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

주요어 : 의사소통, 인간관계, 집단역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Hyunsook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141 Fax: 82-2-961-9398 E-mail: hsshin@khu.ac.kr

투고일 : 2008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4일

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Park, & Ha, 2006)에 의하면 간호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업과 아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엄중한 행동 규범과 무거운 책임감을 요하는 임상실습과정을 거치면서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특히 대학의 상담실 등의 보고서 등을 통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제 갓 청소년기를 벗어난 대학생에게 넓은 전 인생 주기의 대상자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어려움과 각 관계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은 현행 간호학과 교과과정에 의사소통 과목이 전공기초과목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도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Ammentorp, Sabroe, Kofoed, & Mainz, 2007; Tocomo, 2003)에서 삶의 경험과 임상경험 등이 이들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의사소통 교육 및 훈련은 개인이 지각의 체계를 가지고 참여자 간에 의미를 형성하여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Ju, 2005). 현재까지 간호학과의 교과과정 중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이나 2학년에 의사소통 과목을 전공기초 영역으로 선정하여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강의가 의사소통 훈련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만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지식전달에 그치는 한계를 보고하고 있다. Kim, Park과 Ha (2006)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 교육에서도 적정 인원과 방법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상호작용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넓은 강의실에서의 강의식 교육으로는 효과적으로 습득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의사소통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 강의실의 구조와 크기, 학생 수, 시간, 실습 환경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강의형식의 의사소통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학습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학습방법은 소집단 내에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도록 제시되었을 때 이 과제를 위해 함께 토의하고 토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고 수행 후에 다시 토론을 통한 평가를 함으로써 집단역동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나타나 의사소통과 같이 태도와 행동으로 내재

화되어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일대다의 강의형식의 전통적인 효과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1996). 이러한 소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교육이 최근 시도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회성 연구를 위한 소수의 모임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Bae, 2004). 이에 전공기초과목으로 의사소통 교과목을 선정하고 있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한 학기 교과목 내에서 이론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Ju (200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 노출 및 자기표현, 의사소통의 방향과 표현 방식, 경청, 공감, 나-전달법, 피드백 주고받기를 포함한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으로 강의되어 온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추가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형태의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 대학의 다른 학과 신입생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교육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교육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교집단 사전사후 측정을 한 유사실험설계이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후 실험처치로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같은 시기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만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 110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검사를 실시한 후 소집단 역동을 이

용한 의사소통 교육을 시행하였다. 비교집단은 동 대학의 타과 학생들 중 두 과목의 1학년 교양과목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50명 중 사전사후 검사 한쪽의 측정에만 참여한 9명을 제외하고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교육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로 투입된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교육은 이전까지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의사소통 강의내용을 소집단 역동과 대집단 역동을 이용하는 형식을 적용하여 재구성한 내용이다. 강의위주의 기존의 교과목 내용의 진행을 집단 간의 역동을 이용하여 실습위주의 훈련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소집단 역동은 8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내에서 개인 간에 일어나는 역동성을 의미한다. 소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기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힘이 전달되면서 크고 작은 역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집단 역동은 과제를 사전학습하는 모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과제를 토의하고 요약하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소집단을 기본으로 전체 집단의 활동 가운데 발생하는 대집단 역동성도 의사소통 훈련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소집단과 대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역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마다 소집단 내에서 자전하고 대집단 내에서 일정간격으로 자리이동(공전)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교육은 전체 16주의 한 학기 강의 중 8주의 의사소통 훈련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1회씩 8주간 두 교수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8주 동안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은 각종 의사소통 훈련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Kruijver, Kerkstra, Francke, Bensing, & Wiel, 2000)에서 이들 훈련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2일에서 10주까지 진행되었는데 실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6-8주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제시된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매 주의 소요 시간은 150분이다.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주제가 주어지면 사전모임을 통해 주어진 주제와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고, 프로그램 시간에 선택된 2집단이 10분 동안 사전학습 및 토의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교수자가 10분 동안 그 주제에 대해 요약한 뒤, 준비된 사례와 문제에 대해 사전학습한 이론에 기반해서 토론 및 문제풀이를 진행한다. 이때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그룹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20분 동안 선택된 2-3집단이 전체집단 앞에서 발표하고 이후에 그 회기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시간을 20분 동안 진행한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2)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Navran (1967)이 개발한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PCI)를 Mo

Table 1.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the nursing freshmen

| Week | Content | Strategies |
|--------------|--|--|
| 1 | Orientation Therapeutic human relationship | Pre-test: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ve competencies Orientation on the basic rules and leaders' manuals |
| 2 | Therapeutic communication | Demonstration Group discussion and feedback |
| 3 | Warmth and Johari's window | Demonstration Role playing activity Group discussion |
| 4 | Empathy and Questioning | Demonstration Role playing activity Case discussion |
| 5 | Active listening and I-message | Demonstration Role playing activity I-message exercise |
| 6 | Transactional analysis | Individual exercise: ego-gram |
| 7 | Transactional analysis | Analysis of ego-gram |
| 8 | Communicative strategies with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nd elderly | Faculty demonstration |
| | | Individual and group feedback |
| 1 week after | | Post-test: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ve competencies |

(2001)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Mo가 248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의 의사소통 도구의 신뢰도는 α 계수 .89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 도구는 언어적 의사소통 18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경청, 자기 노출 및 자기 표현 능력, 공감능력, 관계형성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가 Cronbach α 값 .81-.83으로 분포되어 문항내적일관성에서 신뢰로운 검사도구로 나타났다.

3) 인간관계 측정 도구

인간관계는 Schlein 등(1971)이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Ju (2006)가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수정한 25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인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구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이 .72-.88로 문항내적일관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참여군에 대한 소집단 역동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학기 중에 시행되었다. 8주 동안 1주에 1회 150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배치하고 이 자리는 소집단 내에서 주마다 자리이동을 하도록 하였고, 소집단들끼리도

주마다 자리이동을 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주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2회에 1번씩 자가 평가표를 나누어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평가표는 회별 진행과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를 참고로 진행속도와 방법을 조정하였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비교군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는 참여군과 같은 시기에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타학과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사는 참여자의 나이와 의사소통 능력, 인간관계에 대해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의사소통 훈련 후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관계가 의미있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해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유의수준 .05 이상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Table 2에서는 실험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인간관계에 대한 동질성 검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질성 검사결과 전 영역에서 실험군과 비교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검사 시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관계에서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1.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을 받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어 제1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인간관계

Table 2. Homogeneity Test of the Variables (N=126)

| Variables | Experimental group (n=83) M±SD | Control group (n=43) M±SD | t | p |
|-------------------------|--------------------------------------|---------------------------------|------|-----|
| Age (yr) | 20.27±1.22 | 20.07±0.34 | 1.41 | .16 |
| Communication | 3.48±0.36 | 3.47±0.41 | 0.15 | .87 |
| Verbal communication | 3.53±0.40 | 3.52±0.45 | 0.15 | .87 |
| Nonverbal communication | 3.21±0.43 | 3.24±0.39 | 0.33 | .73 |
| Relationship | 3.56±0.45 | 3.52±0.39 | 0.37 | .70 |
| Satisfaction | 3.38±0.50 | 3.37±0.52 | 0.10 | .91 |
| Communication | 3.47±0.49 | 3.51±0.46 | 0.40 | .68 |
| Reliability | 3.55±0.52 | 3.48±0.62 | 0.65 | .51 |
| Familiarity | 3.77±0.47 | 3.72±0.58 | 0.52 | .60 |
| Sensitivity | 3.53±0.59 | 3.63±0.62 | 0.87 | .38 |
| Openness | 3.65±1.60 | 3.49±0.47 | 0.61 | .54 |
| Understanding | 3.59±0.49 | 3.68±0.50 | 1.00 | .31 |

Table 3. Mean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126)

| Variables | Experimental group (n=83) M±SD | Control group (n=43) M±SD | t | p |
|---------------|--------------------------------------|---------------------------------|-------------|-----|
| Communication | 0.13±0.54 | 0.02±0.24 | 0.50 (1.14) | .05 |
| Relationship | 0.12±0.59 | 0.01±0.26 | 1.59 | .11 |

Table 4. Group comparisons in Communication

(N=126)

| | | Experimental group (n=83) | | Control group (n=43) | |
|-------------------------|---------------|---------------------------|-----------|--------------------------|-----------|
| | | Pre | Post | Pre | Post |
| Communication | M±SD t (p) | 3.49±0.36 2.15 (0.03)* | 3.62±0.38 | 3.47±0.42 0.66 (0.52) | 3.49±0.35 |
| Verbal communication | M±SD t (p) | 3.54±0.40 1.70 (0.09) | 3.65±0.39 | 3.52±0.45 0.34 (0.73) | 3.53±0.36 |
| Nonverbal communication | M±SD t (p) | 3.21±0.43 3.60 (0.00)* | 3.47±0.49 | 3.24±0.39 1.51 (0.13) | 3.33±0.44 |

Table 5. Group comparisons in Human relationships

(N=126)

| | | Experimental group (n=83) | | Control group (n=43) | |
|--------------------|---------------|---------------------------|-----------|-------------------------|-----------|
| | | Pre | Post | Pre | Post |
| Human relationship | M±SD t (p) | 3.57±0.45 1.91 (.06) | 3.69±0.34 | 3.52±0.39 0.04 (.96) | 3.53±0.40 |
| Satisfaction | M±SD t (p) | 3.38±0.50 3.29 (.00)* | 3.66±0.50 | 3.37±0.52 0.09 (.92) | 3.36±0.53 |
| Communication | M±SD t (p) | 3.47±0.49 2.83 (.00)* | 3.66±0.40 | 3.51±0.46 1.03 (.30) | 3.57±0.51 |
| Understanding | M±SD t (p) | 3.59±0.49 3.16 (.00)* | 3.82±0.49 | 3.68±0.50 0.00 (.90) | 3.68±0.48 |
| Reliability | M±SD t (p) | 3.55±0.52 1.50 (.13) | 3.68±0.52 | 3.48±0.62 0.34 (.73) | 3.51±0.64 |
| Familiarity | M±SD t (p) | 3.78±0.46 1.24 (.21) | 3.88±0.51 | 3.72±0.58 0.78 (.43) | 3.78±0.49 |
| Openness | M±SD t (p) | 3.53±0.59 2.26 (.02)* | 3.73±0.61 | 3.63±0.62 0.13 (.89) | 3.65±0.52 |

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간관계는 비교군과 비교해볼 때 유의
하게 상승되지 않아서 제2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3).

의사소통 능력을 보았을 때 실험군의 경우 의사소통 훈련이
후 그 점수가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향상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비교군의 경우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
통 모두에서 점수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Table 5는 실험군과 비교군 간 의사소통 훈련 전후 인간관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검사 결과, 실험군에
서 의사소통 훈련 이후 인간관계 점수가 유의수준 .05에서는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인간관계
의 하부항목을 분석해보았을 때 만족도와, 의사소통, 이해력,
개방성 측면의 점수는 의사소통 훈련 이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비교군에서는 인간관계의 전 영역에 있
어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 적용 후에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Ju
(200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사소통 훈련에서 그들
의 의사소통 유능감과 인간관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Ju (2006)의 프로그램은 전체 10회기를 주 2
회씩 5주간 시행하였고 매 회기의 소요시간이 90분에서 120분
이었다. Choi (2004)는 의사소통 기술 집단상담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8-13명의 집단으로 8주동안 8회기를
진행하였는데 1회 50분동안 집단상담을 진행하여 이들의 자아
개념 일부요소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효
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hoi (2004)의 프로그램은 주로 자아
표현을 하는 것과 자기이해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만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과 8회기가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소집단 역동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은 총 8회 1회 150분 8주동안 진행되었다.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Choi (2004)와 Ju (2006) 외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맥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골격은 선행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현장에서 대상자와의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업무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사례와 문제로 재구성되어서 Johari의 창을 이용한 자기노출, 공감, 교류분석 등의 이론들이 실제 간호현장사례에 맞추어 개발되었다. 이 때문에 간호학과 1학년이나 2학년에 주로 실시되는 의사소통 과목을 전통적인 강의형식보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프로그램 적용 후 변화를 살펴본 인간관계 정도는 그 평균점수는 상승하였으나 p 값이 .06으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의하게 지지되지 못하였다. 비교군에서는 인간관계의 전 영역에 있어서 사전사후 점수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보았을 때 실제로 동일하게 시작하였던 실험군과 비교군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산의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의 하부항목을 분석해 보았을 때 만족도와 의사소통, 이해력, 개방성 측면의 점수는 의사소통 훈련 이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Kim (2008)은 대인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사소통 요인에는 자기개방의 두려움, 자기이해 부족 등이 포함되는데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한다면 상대방이 나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고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개방의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으며, 또한 Kim (2003)의 연구에서도 자기이해의 부족으로 자기자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회피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려는 태도가 대인관계 향상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분석한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인간관계 하부요인의 이해력과 개방성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은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교육의 바람직한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유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u, 2006)에서 작은 규모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프로그램의 결과 인간관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대집단 속에서 소집단으로 나누어 대집단 역동과 소집단 역동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에서 규모

가 커짐으로 인해 의사소통 유능감 향상과는 달리 본질적인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에는 대집단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Lee와 Chung (2004)은 인간관계의 향상까지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피상적인 교제에 머물지 않고 신뢰를 형성하여 심층적인 대인접촉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인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소집단 규모로 적용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과제로 남겨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은 소집단 역동을 의사소통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소집단 역동은 의사소통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소그룹으로 사전 학습 과정을 통해 함께 토의하고 이를 요약하고 프로그램 시간에 발표하고, 이후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에 사전토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적용하고 이를 다시 토의를 통해 정리한 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에 의한 힘의 전달이 일어나면서 형성되는 역동이 결론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실험군과 비교군의 종속변수 동질성 검증결과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지만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을 실험군에 배치하고 동일한 시기에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타과학생을 비교군에 배치한 것이 연구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Amentorp et al., 2007; Tocomo, 2003)에서 삶의 경험과 임상 경험 등이 이들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학 1학년생이기는 하였지만 향후 3학년 이상의 간호대학생의 실습경험과 생활경험 등이 이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유능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을 교육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사소통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자들이 인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험자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제한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에게 의사소통 훈련을 8주 동안 제공하고 이 의사소통 훈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골격으로 소집단의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대학생의 의사소통 유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교육방법이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제 간호대학의 의사소통 강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사소통 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실제현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구현할 수 있는 유능성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전통적인 강의형식과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을 비교하는 추후연구를 진행한다면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훈련방법이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방법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간호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mmentorp, J., Sabroe, S., Kofoed, P. E., & Mainz, J. (2007). The effect of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on medical doctors' and nurses' self-efficac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6, 270-277.
- Arranz, P., Ulla, S. M., Ramos, J. L., Del Rincón, C., & López-Fando, T. (2005). Evaluation of a counseling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staff.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56, 233-239.
- Bae, I. S. (2004). *The effect of a small group study on the learning achievement and the internal motiv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Choi, E. Y. (2004).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Ju, J. S. (2006).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 Kim, H. S., Park, W. J., & Ha, T. H. (2006). The effects of education of communication on perceptual orientation, self-efficacy,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0, 95-111.
- Kim, M. H. (2008). A study on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7, 55-64.
- Kim, S. K. (2003). The effects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5(2), 71-84.
- Kruijver, I. P., Kerkstra, A., Franche, A. L., Bensing, J. M., & van de Wiel, H. B. (2000). Evaluation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s in nursing care: A review of literature. *Patient Education Counseling*, 39, 129-145.
- Lee, H. D. (1996). *The theory and practice of academic class*. Seoul: JungAng Abtitude Publishing Co.
- Lee, S. H., & Chung, S. E. (2004). A study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5, 133-151.
- Mo, E. H. (2001). *The development of marit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coupl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Navran, L. (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The Family Process*, 6, 173-184.
- Schlein, S., Guernsey, B., & Sto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 Tocomo, N. (2003).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Memoirs of School of Health Sciences*, 1, 71-81.